‘수화’로 전한 부처님 가르침 30년

창립 30주년 맞은 조계사 원심회 걸어온 길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불교계를 대표하는 장애인 전법단체 중 한 곳인 조계사 원심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조계사 장애인전법팀 원심회(회장 김경환)는 11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서 ‘〈백유경〉 수어(수화언어)영상 고불식 및 창립3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행사서 최초로 영상이 공개되며 제작된 DVD는 무료 배포된다.

원심회는 “불교는 이해하기 어려운 종교가 아닌, 청각장애인들에게도 활짝 열려있는 종교임을 알리고, 이들이 수화를 통해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장애인 포교의 중심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원심회는 해당 영상 제작 프로젝트를 2년간 진행했다. 먼저 경전에 실린 불교우화 중 30편을 선정한 뒤, 청각장애인 회원은 출연 및 감수를, 수화통역사 회원은 촬영·편집을 맡아 2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제작했다. 조계사(주지 지현)와 초대회장 덕신 스님의 후원도 있었다.

불교 대표 수화포교단체의 시작

원심회는 불교를 대표하는 수화포교단체로, 청각장애인과 수화언어통역사가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일한 불교계 단체이다.

초대회장 덕신 스님(1988~2005, 대구 대륜사 주지)은 1980년대부터 범종교 봉사단체와 인연을 맺으면서 불교가 이웃종교에 비해 장애인을 위한 활동이 부족하다는 고민을 시작했다고 전한다. 스님은 1988년 원심회의 전신인 강남 원심포교원서 수화교육을 받고난 뒤, 강사·수강생 10명과 함께 원심회를 창립했다.

초창기에는 사무실과 법당 없이 옮겨다녔지만, 1992년 조계사불교대학 지하에 원심회 법당을 마련했다. 원심회는 이후 조계사 내 장애인전법팀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현재 전국 불자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50명 가운데 원심회 출신은 10명으로, 원심회 내 수화통역사 7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1989년부터 청각장애인법회를 개설해 정기 수화법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비장애인 대상 초·중급 수화교육 강좌를 상시 운영하고 각 단체에 수화강사를 파견하는 등 장애와 수화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 제고와 인식 개선에 진력을 다해왔다.


불기 2562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4월 14일 열린 ‘조계사 장애인 불자대법회’서 원심회 회원 스님들이 수화공연을 하고 있다.

88년 창립… 초대회장 덕신 스님
불자 수화통역사 20% 배출
의식·찬불가 등 ‘불교수화’ 정립
1998년엔 〈불교수화집〉 발간

창립 30년 ‘백유경’ 프로젝트
불교우화 30편, 수화영상 제작
11월 18일 고불 및 기념법회

‘불교수화’ 표준화·정립 성과

특히 불교 수화언어를 표준화하고 정립한 이들이 바로 원심회다. 이전까지 청각장애인들은 불교를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었다. 원심회는 한국수화 단어 내 불교관련어가 5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기본의식인 삼귀의, 사홍서원, 반야심경 등 ‘불교수화’를 창안했다.

1998년 〈불교수화용어집(자비의 손길)〉을 출간한 원심회는 2010년부터 불교수화 표제어 1,071개를 웹사이트에 업로드해 누구나 불교수화사전을 검색할 수 있도록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수화로 연극을 만들어 공연하거나, 찬불가를 수화로 통역하는 방법 등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이 불교를 접할 수 있게끔 시도했다.

원심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불교수화 동영상 제작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간 불교수화단어와 찬불가, 경전 등을 수화언어로 번역해 영상화한 뒤, 전국 법회와 청각장애인 및 불교수화를 알리고자 하는 곳에 무료로 배포하는 사업이다. 2008년 창립 20주년 사업서는 찬불가 55곡 및 불교수화단어를, 2013년에는 불교의식 및 찬불가 총 46편을, 2015년 창립 27주년 사업으로 〈천수경〉 수어 역경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최초 청각장애인 포교사 배출

그간의 노력 끝에 원심회는 2010년 8월, 청각장애인 최초로 조계종 포교사를 배출한 값진 성과를 얻었다.

김경환 원심회 회장은 “원심회는 30년간 어떤 영리적인 목적 없이 청각장애인들에게 불교의 실천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정표 역할을 해왔다”며 “부처님 말씀을 보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갈 곳이 원심회 한 곳뿐인 현실이 부끄러우면서도 큰 책임감을 느낀다. 어쩌면 이런 사명감이 지금까지 원심회를 지탱해올 수 있는 버팀목이 된 것 같다”고 소회를 전했다.

처음 수화법회에 참석한 1992년만 해도 불교수화도 몰랐고, 교리도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김 회장은 “보는 언어를 쓰는 청각장애인 특성상, 청각장애인 포교는 문자로 의미를 전달하기보다 영상을 통한 포교가 가장 좋다. 원심회가 관련 영상 제작에 힘을 쏟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며 “지금까지 불교기본의식을 수화언어화한 것처럼 앞으로 기초교리, 부처님 일대기 등 포교자료로 활용할 동영상 제작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계종 포교원 장애인전법단장 도륜 스님은 “장애인전법에 예산 및 인력이 전담된 이웃종교계에 비해 현재 불교계는 일부 스님과 불자 외에는 관련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청각장애인 포교사도, 수화로 포교 가능한 스님도 각각 1명밖에 없다”며 “각 사찰과 불자들의 지원이 절실하다. 숨어있는 불자 장애인들을 발굴하는 첫 걸음은 격려와 작은 관심임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불교계 생명존중 문화 위해 힘 모은다

불교상담개발원·포교사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MOU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과 조계종 포교사단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해 11월 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협약에 따라 불교상담개발원과 포교사단은 불교계 생명존중과 자살예방활동을 위한 연구 교육 및 대내외적 활동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불교상담개발원은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공동 사업 확산을 위한 대외 홍보 등도 함께 진행한다.

포교사단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포교사 인력 등 인적 연계를 맡으며 자살예방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지방 단위 조직을 지원한다.

불교상담개발원장 가섭 스님은 “정부가 보건복지부 내 자살예방과를 만드는 등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은 사회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가톨릭과 원불교 등이 참여하는데 불교계는 동력이 부족했다”며 “포교사단이 함께 마음을 내줘 감사하다. 포교현장에서 활동하는 4700여 포교사들이 있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포교사단은 포교사 인력을, 불교상담개발원은 교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윤기중 포교사단장은 “OECD 회원국 중 노인자살율 1위라는 한국의 상황에서 생명존중운동은 꼭 필요한 것”이라며 “불자들은 5계 중 불살생계가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 포교신행단체가 생명존중운동에 네트워크를 보탠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못 찾은 세월호 희생자도 극락왕생을”

조계종 사회노동위
11월 6일 목포신항서
故조은화·허다윤
추가 유골 수습의례

지난달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를 공식선언한 가운데, 조계종은 추가 수습된 유골 추모의식을 치르고 마지막까지 희생자 전원의 아픔을 보듬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는 11월 6일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목포 신항서 ‘미수습자 조은화, 허다윤 학생의 추가 수습 유골 의례식’을 봉행했다. 이날 사회부장 덕조·국장 해청 스님과 사노위 소속 스님들, 김창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 해수부 및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희생자 유가족, 목포 시민 등 각계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희생자들을 기렸다.

故조·허 학생의 유해는 2017년 5월 최초 발견, 수습됐다. 그 해 10월 장례식을 치른 뒤, 다른 미수습자 수색과정서 두 학생의 유골이 추가 수습됐다. 해당 가족들은 아직 찾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1여 년간 유골을 목포신항에 안치한 채, 다른 추가 수습을 기다렸다.

사회부장 덕조 스님은 이 자리서 “故조은화, 허다윤 학생은 참사 4년 6개월 만에야 비로소 가족 품으로 돌아와 쉴 수 있게 됐다”며 “두 학생과 끝까지 흔적을 찾지 못한 나머지 미수습자들 모두 극락왕생하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추가유골 수습의례 중 세월호 전 희생자들을 향해 묵념하는 모습.

사노위에 따르면 故조·허 학생 유가족들은 그동안 기도, 오체투지 등으로 희생자들을 위해 애쓴 종단 스님들에게 이날 의식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스님들은 두 학생 추가 수습유골을 두고 극락왕생을 축원했다.

수습 의례를 마친 두 유골은 수원 연화장으로 옮겨져 화장됐다. 이후 기 유골이 안치된 납골당에 봉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원 기자

조계종 화쟁위 원효 발자취 더듬다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화쟁사상을 주창한 원효대사의 발자취를 더듬는 순례를 실시한다.

화쟁위원회는 11월 23~25일 경산 초개사·제석사와 경주 분황사·골굴사·기림사·월정교 등을 돌아보는 ‘화쟁의 원류를 찾아서-원효의 발자취 순례(이하 원효순례)’를 개최한다.

화쟁위원회는 “원효순례는 걸림 없이 자유롭게 대중을 보듬어 안은 원효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인간 본연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를 사색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원효순례에서는 원효 스님이 주석했던 사찰 참배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원효를 만나다’의 김선아 감독의 특강도 진행된다. 아울러 원효순례는 조계종 교육원 연수인증교육으로 인증돼 참여한 스님들에게는 연수점수 30점이 주어진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9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 집
어학단기반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11월 25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 http://www.njutcm.co.kr